

2010

설날 가정예배



www.chungpa.or.kr

청파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.

설날 가정예배 순서

〈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,
이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〉

예배로의 초대 인 도 자

설날을 맞아,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
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.

조용한 기도 시편121편 인 도 자

찬 송 28.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 이

교 독 문 67번 다 같 이

인도자: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
지으신 바나이다

회 중: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

인도자: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

회 중: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

인도자: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

회 중: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

인도자: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
을 벗어 버리고

회 중: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
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

인도자: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

회 중: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

인도자: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

다같이: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

기 도 가 족 중

성 경 말 씀 시편119:137-144 인 도 자

설 교 주님의 말씀은 가 족 중

찬 송 ... 435(434). 나의 영원하신 기업 ... 다 같 이

주 기 도 다 같 이

설교말씀

설날은 중요한 날입니다. 왜냐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세배 드리고 성묘를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또한 웃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덕담을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설이 한 해의 시작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함이 마땅합니다.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의 단추까지 잘못 끼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설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문 말씀에 "주의 말씀은 진리라"고 했습니다. 그러므로 새해 첫날 다음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다지길 바랍니다.

1.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. "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(수1:7)"

2.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. "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(신6:6-9)"

3.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말씀. "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(왕상2:3)"

성경의 인물들이 주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법입니다.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준이요, 이정표이며, 가정과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.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새해를 여는 기도

받은 상처는 예리한 메스가 되어 가슴을 후벼팠고
준 상처는 아둔하여 두루몽실 기억이 없었습니다.
나 잘난 멋에 살아온 빈 껍데기였고
나의 관점이 진리라 고집했습니다.

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나의 전부라 착각했고
남의 허물을 덮어줄 내 안에 여백이 없었습니다.
나 가진 것 너무 많아 교만했고
나 받은 것 너무 많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.

남을 미워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미웠고
내 것이라 아등바등 할 때 가난해짐을 배웠습니다.
나를 부인할 때 내가 누구인지 보았고,
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남을 인정할 때 부유하다는 것 알았고
남이 존재할 때 내가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.
남이 아파할 때 어머니의 가슴으로 눈물 품게 하시고
남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굳센 팔뚝 되게 하소서.

미움, 시기, 질투에서 까마득히 도망치게 하시고
서로 모자란 것 채우고 느슨한 바보가 되어
세상 피게 하소서.